

地選 후보 등록 시작...與野, 선대위 체제 전환

민주 "지방권력 확보" vs 국힘 "독주 견제"

21일부터 선거운동...29-30일 사전투표

정청래, 영남 공략·장동혁, '이재명 때리기'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이 14일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이미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마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출발한 지방정부를 심판하고 입법과 행정 이어 지방권력까지 확보한다는 각오다.

계엄·탄핵사태 등으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심판론을 앞세워 여당 독주 견제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정청래 대표는 이날 울릉도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영남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정 위원장이 울릉도를 찾은 건 지선을 앞두고 광역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까지 살살이 훑으며 유권자를 만나겠다는 민주당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격전지인 영남권에서 보수 결집 기류로 국민의힘의 추격세가 감지된 것도 정 위원장의 울릉도 방문 배경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도 이재명 대동

령 때리기에 나섰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십조 손실을 불러올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이재명은 수금 욕심밖에 없다.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이 바로 이재명의 본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과 이윤이든, 초과 세수든 이재명이 잘해서 번 돈이 아니다. 애당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손가락을 엮을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는 이날부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원에서 15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

역·전과·학력·세금 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법 후보 경력 등은 6월3일 선거일까지 중앙선거위 선거통계시스템(https://info.nec.go.kr)에 공개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2일까지 13일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기간에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과 대담,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있다.

광역시장과 도지사 후보들은 신문·방송 광고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할 수 있고, 차량 부착용이나 휴대용 확

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항공기 안과 터미널 구내, 지하철 구내, 병원, 도서관 등에서는 연설이 금지된다.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를 통해 선거 운동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해 전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오는 28일부터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이틀간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다. /김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와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14일 오후 민 후보 선거캠프에서 '독서도시 정책'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형배 후보 측 제공〉

민형배, 김영호 국회교육위원장과 정책협약

"대한민국 대표 시민문화도시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14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정책협약을 맺고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대표 시민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선대위 사무실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독서도시 정책 발표 및 협약식'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독서·문학 생태계 조성 정책을 발표했다.

협약을 통해 민 후보와 김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문화적 정체성과 지역 자산을 기

반으로 시민 참여형 독서·문학 생태계를 만들고 지역문화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시대 독서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전략으로 삼자는 '독서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부천·과주·춘천 등에서 독서도시 선언과 정책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독서 국가 프로젝트를 민주주의와 인문학의 도시 전남광주에서 꽃피워야 한다"며 "전남 광주만의 독서도시 모델이 정착할 수 있도

록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 후보는 "김 위원장의 제안과 함께 독서 정책을 제대로 펼친다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경쟁력은 한층 올라갈 것"이라며 "책이 지역을 살리고, 문학이 시민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민문화도시의 길을 전남광주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민 후보는 시민문화도시 정책으로 ▲생활권 어디서나 책을 접할 수 있는 생활 독서도시 기반 조성 ▲시민이 자기 삶을 기록하는 '1시민 1책쓰기' 추진 ▲지역서점과 출판물 살리는 책순환 경제 조성 ▲시민 낭독극 및 희곡 읽기 활성화 ▲남도문학과 오월 스토리 대표 콘텐츠 육성 등을 제시했다. /변은진 기자

후보자 기호는 국회 의석 수 순서대로

민주 1번·국힘 2번·혁신 3번·개혁신당 4번

교육감 기호 없이 선거구별 순서바뀌 배정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기호는 소속 정당의 국회 의석 수 순서대로 부여된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치러지는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 기호는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15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국회에서 의석이 있는 정당의 후보자,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된다.

국회 의석을 가진 원내 정당의 경우 5석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직전 대통령 선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지방선거에서 3%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에 의석수순서대로 '전국통일 기호'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 국민의힘이 기호 2번을 받는다.

지역구 의석이 없지만 지난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24.25%의 득표율을 얻어 12개

의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은 기호 3번, 지역구 국회의원 1석을 포함해 국회 의석이 3석이지만 지난 해 대선에서 834%의 득표율을 얻은 개혁신당은 기호 4번을 각각 받게 된다.

이는 전국 선거에 통용되는 통일 기호로 해당 정당들만 기호 1-4번을 쓸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지역에서도 타 정당, 무소속 후보가 기호 1-4번을 사용할 수는 없다.

그 외 원내 정당의 후보자는 의석이 많은 순서에 따라 기호를 부여받는다.

의석이 없는 원내 정당 후보자의 경우 소속 정당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원내정당 후보자보다 뒷번호에 배치되며, 무소속 후보자는 정당 소속 후보자의 뒷번호를 관할 선거구의 추천에 따라 부여받는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같은 정당 후보자들은 정당 번호와 함께 당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가나다'를 사용한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별도 기호 표시는 없으며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 순서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 순차적으로 바뀌 배정한다.

/김진수 기자

시·도지사協, '지방민생 외교포럼' 개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3일 오후 외교부와 공동으로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외교의 역할: 경제편'을 주제로 '2026 지방민생의 외교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유민봉 협의회 사무총장은 "현재 경제 외교는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중심으로 작동하는 구조에서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지방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리온드테이블에서 시·도 국제관계대사들은 "외교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체계는 진화의 과정에 있으며 지역 특성을 활용해 글로벌 관점에서 다양한 지방외교 아젠다를 적극 발굴하면서 국가 전체와 지역의 이해를 조율하고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진수 기자



건강검진

매일 체크 ✓ 행복 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광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60415-중-211304호

